

• 늘어나는 지역별 여성 소그룹모임

여성운동 저변확대에 디딤돌 역할

여성들이 지역생활인으로, 학부모로, 여성으로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별 소그룹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여성운동의 '저변확대'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

회원 1~2백명의 규모의 소그룹 여성조직의 선두주자는 한국여성민우회(회장 한명숙)로 여성민우회 산하에 노원·도봉지역협의회(대표 이경숙)를 발족시키고 지난달 11일 이미 사무실 입주와 한차례 조출한 행사를 치른 상태다.

현재 정회원 2천5백명의 한국여성민우회는 1백명 회원

을 둔 노원·도봉지역협의회 외에도 최소한 회원 2백명에 달하는 강남·서초, 강동·송파, 서대문·은평, 구로·영등포지역협의회를 가동시켜 이 지역 주부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독산·구로지역에는 <살기좋은 구로지역 만들기>(일명 살구회, 대표 김주숙)가 올초부터 활동을 시작, 지역주민의 일차적욕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공부방 운영과 각종 교육행사를 실시해 여성문제를 소리높여 외치기보다는 '여성생활현장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추세다.

전문직, 사무직 대상의 일반 여성문제와 아울러 생활협동사업과 병행된 주부분과 모임을 끌어온 한국여성민우회가 서울의 5곳에 지역협의회를 탄생시킨 실질적 힘은 이곳 주부분과 모임에서 교육을 받은 주부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돌아가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을 주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런 모임이 길게는 2~3년 짧게는 1년 정도 지속돼 왔다고.

노원·도봉지역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경숙 대표는 "그간 여성단체 활동이 제도적 차별개선에 주력해 왔지만 이를 실생활활동에 거의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런 활동도 무척 필요하고 중요하나 생활현장에서 부딪치는 각종 자녀교육문제나 주택, 환경오염문제를 풀면서 해나가는 새로운 여성조직운동이 실질적 여성운동의 확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앞으로 여성민우회 산하 각 지역협의회 활동의 일차목표는 지역주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문제해결과 함께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조직으로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생활협동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에 초점이 두어질 예정. 또한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부의 의식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연구와 교육활동으로 민우 여성학교 개설 등 주민요구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알려져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공식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낸 노원·도봉지역협의회는 최근 이 지역조사를 통해 이곳 주부들의 자녀교육문제나 공해문제관련 활동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밝혀내기도. 그러나 실제 듣고 싶어하는 교육강좌는 자녀문제외에는 취미, 교양교육으로 나타나 실제 원하는 활동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학력(고졸이상 64.8%), 핵가족세대(가족수 3~4명이 71.9%)에 월수입 81만~1백5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곳 지역 주부들의 72%가 식품공해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70.6%는 무(저)농약 식품을 먹겠다고 응답한 반면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에는 반수 정도가 참여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여성들의 관심도에서 여성문제는 가장 거리가 멀었고, 연령별로 자녀, 주택, 건강 순으로 관심의 차이를 보이기도.

노원·도봉지역협의회는 이런 조사에 근거, "주부들이 운동차원에서 해야할 활동과 실제 원하는 활동간에 의식차가 큰 부분이 앞으로 지역사업에서 풀어야 될 과제"로 보고 소그룹모임 기반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